

### 'KF-21 보라매' 시제 1호기 출고식

설계부터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대한민국의 기술진이 주도해 제작한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시제 1호기가 4월 9일 출고됐다. 고정익 항공기로는 2001년 고등훈련기 T-50 시제 1호기 출고 이후 20년 만에 이룬 성과다. KF-21의 이름은 21세기의 우리 하늘을 우리가 지킨다는 의지를 담아 '보라매'로 명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 생산공장에서 열린 출고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우리도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갖게 됐다. 세계 여덟 번째 쾌거"라며 "자주 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항공산업 발전의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제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마치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 2028년까



지 40대, 2032년까지 모두 120대를 실전에 배치할 계획"이라며 "KF-21 보라매는 우리 공군의 중추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국산 전투기가 갖는 장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개발 과정에서 획득한 에이사(AESA) 레이더를 비롯한 최첨단 항전 기술을 'KF-16' 'F-15K'와 같은 기존 전투기에 적용해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

한미 외교·국방장관이 3월 18일 한미동맹의 역동성·호혜성·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미 간 협력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정 의용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2+2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에는 한미동맹과 한반도 문제, 지역협력, 범세계적 협력 등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도 한미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한미 장관들은 "70년 전 전장에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며 "고조되는 범세계적 위협 속에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



다. 이어 한미동맹과 관련해 "주한미군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함에 주목하고, 한미가 공동의 도전 대처에 필요한 전력 태세와 역량을 함께 확보할 것"이라며 "특히 다년도 방위비담담특별협정 합의는 동맹에 대한 공동 의지의 상징으로 합의를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지원하고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 제54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정부는 2월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욱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국회 주요 인사, 광역자치단체장, 국정원·군·경찰·해경·소방 관계관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4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하는 한편 화상회의를 병행해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국제정세 변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의 전방위 총력안보태세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현재



의 안보정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뒤 지난해 통합방위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추진방향과 역점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 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CPT)이 3월8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됐다. 합참은 "한미동맹은 코로나19 상황, 전투준비태세 유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1년 전반기 CCPT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한미가 그동안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방어적 성격의 지휘소 훈련이었다. 합참은 "이번 훈련에서 앞으로 있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에 대비해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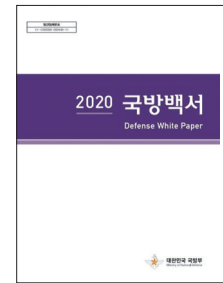
리 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주도의 전구작전 예행연습을 일부 포함하였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훈련 기간 중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 대책도 준수했다. 합참 관계자는 "훈련 동안 가용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휘소를 분산 운영해 밀집도를 낮추는 한편 주기적인 환기 소독을 실시하는 등 시설 방역 대책을 시행했다"며 "제대별 안전훈련 통제 TF 운용과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발열 체크, 훈련 기간에 외부 출타 통제 등 개인 방역 대책도 강구했다"고 말했다.//

### 국방부 "2020 국방백서" 발간

2년에 한 번 우리 국방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국방백서가 2월2일 발간됐다.

국방부는 "지난 2년간의 국방정책을 홍보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1967년 첫 발간 이후 24번째로 나온 이번 백서는 지난 2018년 국방백서가 발간된 뒤 지난 2년 동안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 현안을 정확히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해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국방백서를 제작했다"면서 "국방 정



책을 홍보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군사적인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략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명했다. 이어 "이번 백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두 번째로 발간되는 국방백서로 2년간의 국방정책 성과와 향후 국방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서욱·오스틴 한미 국방장관 회담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3월17일 서울 국방부 본청에서 첫 만남을 갖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상호보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글로벌 동맹으로서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두 장관은 이날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다양한 동맹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회담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오스틴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면 회담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또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과 철통 같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대한 두 나라의 강력한 의지는 불변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조기에 이뤄진 오스틴 장관의 방한은 바이든 정부가 한미동맹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 결과"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만남을 통해 한미 국방부가 굳건한 신뢰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한미 정부가 동맹을 한 차원 높게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과정에서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육·해·공군·해병대 학군장교 임관식

미래 호국간성이 될 육·해·공군과 해병대 신임 소위 3739명이 임무 완수를 위한 첫발을 힘차게 내디뎠다. 육군학생군사학교(학군교)와 전국 117개 학생군사교육단(ROTC·학군단)은 2월26일 2021년 학군장교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오전 학군교에서 열린 통합 임관식은 서욱 국방부 장관이 주관했으며, 전국 117개 ROTC 대표 1명씩이 참석했다. 통합 임관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가족과 외부 인사를 초청하지 않았으며, 국방홍보원 페이스북·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전국 117개 학군단은 이날 오후 자체 임관식을 개최했다. 이번 임관식 신임 소위는 여군 375명을 포함해 육



군 3388명, 해군 103명, 공군 129명, 해병대 119명이다. 이들은 대학 1·2학년 때 학군장교후보생으로 선발된 후 3·4학년 동안 전공 학위교육과 군사학·군사훈련, 임관종합평가 등의 과정을 거쳤다. 임관식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은 박관용(육군)·김민재(해병대)·배성우(공군) 소위가 수상했다.//

###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

한·미·일 3국의 안보실장은 4월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3국 간 협력을 통한 공동대응 의지를 재확인하며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 노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 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해군사관학교에서 회의를 열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3국 안보사령탑의 첫 대면회의다. 백악관은 회의 후 배포한 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우려를 공유했다"며 "비핵화를 향한 3국 공동의 협력을 통해 이 문

제를 대응하고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핵 확산 방지와 함께 한반도에서 역지력을 강화하고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하는 데 있어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성명에 대해 "한·미·일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전했고, 블룸버그통신도 "북한의 새로운 도발 신호를 보낸 단거리 발사 시험에 뒤이어 3국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정식 서명

한국과 미국이 4월8일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규정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정식 서명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각각 한국과 미국 정부를 대표해 협정문에 서명했다.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토마스 와이들리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도 SMA 이행약정문에 서명했다. 양국은 3월 7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보다 13.9% 인상하고, 향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했다. 협정



공백이었던 2020년 분담금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그리고 3월18일 미국 외교·국방장관 방한을 계기로 가서명에 이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정식 서명까지 마쳤다. 국회 비준 동의만 거치면 SMA는 발효하게 된다.//

### 수유리 애국선열·광복군 합동묘역 등 국가관리묘역 첫 지정

국가보훈처는 북한산 국립공원 지역 내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및 광복군 합동묘역'과 경기 안성시 공설묘지 내 '전몰군경 합동묘역' 2곳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한다고 2월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개정·시행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독립·국가유공자 등의 합동묘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유족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은 '서울 수유 국가관리묘역', 안성 전몰군경 묘역은 '안성 사곡 국가관리묘역'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향후 보훈처에서는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된 곳에 전담 관리직원을 배치하고 묘역의 개·보수를 실시할 예



정이다. 더불어 안내·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립묘지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지자체, 유족 등과 협의를 통해 지방에 산재해 있는 합동묘역을 추가로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관리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와 유가족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수유 국가관리묘역에는 김장숙·손병희·신익희·여운형·이시영·이준 등 독립유공자 32명이 안장돼 있으며, 안성 사곡 국가관리묘역에는 6·25전쟁 참전용사 58명이 안장돼 있다.//

### 국가유공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모두 장례서비스 지원

국가유공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됐던 장례서비스가 확대 시행된다. 국가보훈처는 생활이 어려운 유공자에게 제공하는 장례서비스 대상을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 전체로 확대한다고 1월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례지원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됐다. 보훈처는 "서비스 확대로 지원을 받게 되는 국가유공자의 수는 8212명에서 1만4992명으로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례서비스는 지난 2018년부터 국가유공자 예우 정책 중 하나로 시행돼왔다. 보훈처는 서비스를 통해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을 비롯해 수의·관 등 장례용품, 장의차량 등 200만 원 상당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했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나 장례주관자가 사망 즉시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를 통해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 미 한국전 참전비에 4만3000 전사자 명부 새긴다

미국 워싱턴DC 내셔널 몰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 기념공원이 26년 만에 새 단장을 한다. 공원 전체를 둘러싸는 '추모의 벽'을 설치해 그 위에 한국전 전사자 4만3000여 명의 이름이 하나하나 새겨진다. 지난 3월 15일(현지시간) 주미한국대사관과 미 국립공원관리청(NPS)에 따르면 워싱턴DC 한국전쟁 참전 기념공원이 기존 공원 자리에 있는 연못을 중심으로 공원과 추모의 벽을 새롭게 조성하는 프로젝트가 3월16일부터 18개월 간의 공사에 들어간다. 한국전에 전사한 3만6574명의 미군, 미군 부대에 배속된 한국군 카투사 전사자 7000여 명의 명단을 화강암으로 만든 추모의 벽에 새기

는 게 핵심이다. 이 프로젝트는 미 한국전 참전용사추모재단(KWVMF)이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 참전비 등에는 전사자 명단이 있지만 정작 한국전 기념비에는 이들을 기리는 이름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2016년 10월 미 의회가 추모의 벽 건립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한국 국회에서도 그해 11월 건립지원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후 추모재단에서 모금을 시작했다. 한국 정부도 일부 예산을 지원했다. NPS는 2200만 달러(약 249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은 미국민과 한국민의 기부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 유엔 참전용사·해외 독립유공자 방역 마스크 지원 종결

국가보훈처는 2월15일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달려온 22개 유엔참전국 참전용사와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한 해외 독립유공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방역 마스크 지원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마스크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외교행낭을 통해 발송하기 시작해 최근까지 현지 재외공관 등을 통해 직접 전달했다. 22개국

유엔참전용사에 지원한 마스크는 총 200만 장으로 전체 유엔참전용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에 100만 장, 영국 등 21개국 참전용사에게 100만 장을 전달했다. 또 해외 거주 생존 독립유공자인 이하전(98·미국 거주), 오성규(96·일본 거주), 김창석(94·미국 거주) 선생 및 중국·러시아 등 15개국 유족 등 550여 명에게도 마스크 3만여 장을 지원했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대체복무요원도 가입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 대해 국가재원으로 1%포인트 우대금리를 추가 지원하고 가입 대상을 대체복무요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3월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적금 가입자는 은행에서 지급하는 연 5% 수준의 기본금리 이외에 국가재원으로 지급하는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추가 지원받는다. 국방부는 2018년 적금 출시 당시 정부가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병사들에게 한 약속이 이행됐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2018년 당시 병 급여 인상 계획과 연계, 전역 후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가 금융위원회·은행연합회·병무청 및 시중 1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한 5% 수준의 고금리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상품이다. 현역병뿐만 아

니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의무소방 등 전환복무자, 사회복무요원 등 현역병 수준의 급여를 받는 병역의무 이행자가 대상이다. 현재 31만여 명이 가입했을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 시행일 당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면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인원에게는 만기해지 시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1%포인트 우대금리를 소급 지급하도록 했다. 또 대체복무요원까지 가입 대상을 확대해 양심적병역거부로 대체 복무기관에서 근무하는 이들에게도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 차원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부분도 추가됐다. 개정안은 비과세 혜택 지원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소요 기간과 관계기관의 우대금리 1%포인트 추가 지급을 위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독립 유공자 묘지 체계적 관리

국가보훈처는 1월19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독립 유공자 묘지의 실태를 조사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순국선열과 사망 애국지사 묘지 소재·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훈처는 지난해까지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1만6410명 가운데 국립묘지에 안장된 4500명을 제외한 1만2000여 명의 묘지가 국내외에 산재하고 있는 것

으로 파악하고 있다. 보훈처는 실태조사로 확인된 묘지에 대해서는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국립묘지 이장을 추진하고 유족들이 묘지 보존을 원하는 경우에는 보수·유지관리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독립 유공자의 친족 또는 묘지 관리자 등과 연락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보훈처는 이를 통해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독립 유공자 묘지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공군·육군 모집병 모두 화상면접 본다

육·공군 모집병 면접이 전면 비대면 화상면접으로 바뀐다. 병무청은 2월1일 "지난해 7월부터 공군병 지원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했던 비대면 화상면접을 육·공군 모집병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모집병에 지원한 병역의무자는 직접 병무청 면접장을 방문해 면접을 치러왔다. 하지만 거리가 먼 지역에 사는 이들이 불편한 것은 물론 코로나19 심각 단계

이후 대면면접이 잠정 중단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병무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운영 당시 호평받은 비대면 화상면접을 전면 확대했다. 화상면접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한 뒤 행안부 온나라 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PC가 없는 사람은 휴대전화 영상통화로도 면접을 볼 수 있다.//

### 국방부, 군인재해보상 전담 부서(군인재해보상과) 신설

국방부가 군인 재해보상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본부 내에 '군인재해보상과'를 신설했다고 3월30일 밝혔다. 이는 군 복무 중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재해보상법'이 시행됨에 따라 군인재해보상제도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담 부서를 마련한 것이다. 그간 군인연금법에 통합돼 운영되던 군인재해보상제도는 지난해 6월 시행된 군인재해보상법이 제정되면서 분리됐다.

이에 따라 장애보상금의 지급 수준이 올랐고, 전상과 특수직무공상 등 장애 발생 원인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게 됐다. 사망보상금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재해보상법'과 보상 수준을 일치시켰고, 재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도 일원화했다. 이 밖에도 유족가산제를 신설해 유족 1인당 5%, 최대 20%까지 추가 지급하도록 해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 유족에 대한 생활 보장을 강화했다.//